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6월호

제334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라 00007
발행인 박명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 9,6-8)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환자 중심 첨단 디지털 의료 인프라 완비

환자 중심의 첨단 디지털 의료 환경을 구현하고 미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6월 1일부터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전남 동부권 선도 병원으로서 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진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병원 내 모든 진료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신속한 정보 활용이 가능해져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AI(인공지능) 기반 의료 서비스 연계 등 미래형 디지털 헬스케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 높은 기반을 다지게 된다. 또한,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진과 행정 직원의 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각종 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에도 한층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예정이다.

이번 사업 수행사로 선정된 평화이즈는 전국 26개 상급 및 종합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 구축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업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검증된 최신 EMR 솔루션인 ‘nU 2.0 NX’를 적용한다. 평화이즈는 병원 업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지역 거점 의료 환경에 특화된 최적의 맞춤형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박명옥 병원장은 “이번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우리 병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미래 스마트 의료를 선도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풍부한 역량을 가진 평화이즈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민들께 가장 안전하고 고도화된 첨단 의료 환경을 선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화이즈 천만성 대표이사는 “성가롤로병원의 성공적인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미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화답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진 초청 설명회 성료

환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호남권역재활병원 의료진을 초청하여 5월 15일 4층 마리아룸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성기 치료 및 초기 재활을 담당하는 우리 병원과, 수준 높은 집중 재활을 통해 환자의 일상 복귀를 책임지는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연계하여 환자들에게 퇴원 후에도 단절 없는 연속적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장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최준현 심뇌재활센터장, 박경수 예방관리센터장을 비롯한 우리 병원 관계자 23명과 호남권역재활병원 최대우 진료부장 등 양 기관 주요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순천시보건소 황선숙 소장 등 보건소 관계자 4명이 자리를 함께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의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준현 심뇌재활센터장(재활의학과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뇌졸중이나 중증 외상 환자들에게 급성기 치료 이후의 체계적인 회복기 재활은 치료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라며,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호남권역재활병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모범적인 의료 전달 체계 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와 더불어 양 병원은 상호 환자 의뢰와 최신 의학정보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했다. 양 병원은 협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 ●의료 인력의 교육 및 지원 ●진료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의학정보의 교류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협조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선대학교병원과 진료 협력 강화

5월 28일 조선대학교병원과 진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조선대학교병원 최남규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7명의 방문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양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박명옥 병원장, 김영진 의무원장, 김재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박경수 예방관리센터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양 병원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송 환자 관리 방안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 강화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치료식 바로 알기 캠페인 진행

제14회 치료식 바로 알기 캠페인을 5월 19일 1층 로비에서 내원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당뇨, 신부전,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질환에 맞는 식사요법에 대해 1:1 영양상담을 진행하고, 식단모형(당뇨, 신부전)과 6가지 식품군별 식품 모형을 전시하여 적정 섭취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더불어 평소 섭취하는 음식과 간식에 들어 있는 설탕, 소금 함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전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평소 치료식에 관심이 있는 내원객 등이 많은 호응을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영양팀 이선에 영양사

환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병원 환경 개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 내 시설 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환경 개선은 고객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환자 만족도를 향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치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먼저 1층 투약 상담 창구는 기존의 개방형 구조에서 독립된 ‘부스 형태’로 새롭게 리모델링됐다. 이를 통해 약사와 환자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졌으며, 환자의 질환이나 복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상담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환자 및 내원객의 이동이 잦은 지하 주차장 연결로의 환경도 개선됐다. 기존의 무겁고 열기 불편했던 철문을 철거하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힘들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전면 ‘자동문’으로 교체 설치했다.



전문의 초대석

무지외반증의 수술적 치료: 최소 침습 교정술

엄지발가락의 변형이나 엄지발가락 안쪽의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절염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받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지외반증은 관절염 자체가 아니며, 엄지발가락이 휘어졌다고 모두가 수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한 시점을 놓치면 선택지가 줄어들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무지외반증과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3차원의 변형

무지외반증(Hallux Valgus), 흔히 ‘버선발’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단순히 뼈가 튀어나오는 병이 아니고, 발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3차원적 변형입니다. 첫 번째 중족골(발등뼈)이 안쪽으로 벌어지고, 엄지발가락은 바깥으로 휘면서, 두 번째 발가락에 체중이 전가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망치 발가락, 발바닥 통증(중족통), 굳은살 같은 문제가 따라옵니다. 성인 4명 중 1명, 65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어느 정도의 변형을 가지고 있으며,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발 모양이나 평발 같은 내적 요인에 좁은 신발이나 하이힐 같은 외적 자극이 더해질 때 발현되는 다인성 질환입니다. 변형이 진행되면 보행 패턴이 무너지면서 그 부담이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전이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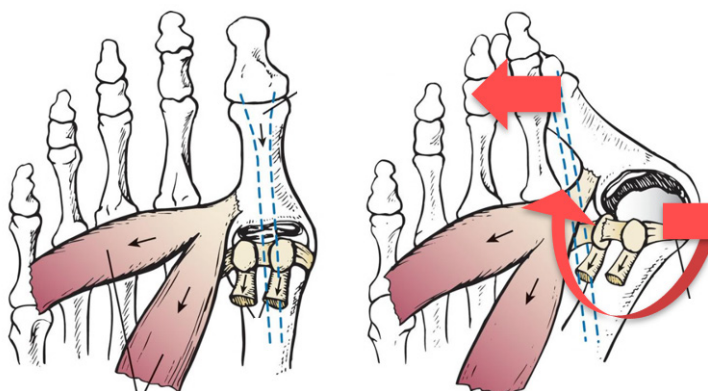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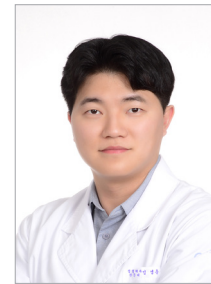


그림 1. 무지외반증의 변형 기전. 엄지발가락 주변의 근육, 힘줄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차 변형이 진행하게 됩니다. (출처: Coughlin and Mann's Surgery of the Foot and ankle 10th edition)

진단과 치료 결정 - 각도보다 증상

무지외반증의 진단은 X-ray 검사로 가능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휘는 각도(HVA)가 15° 이상, 발등뼈 사이 각도(IMA)가 9° 이상이면 진단 기준에 해당하고 각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 등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각도만으로 수술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은 임상 증상입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환자분들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통증이 일상을 바꾸고 있나요? 발 볼 때문에 신발 선택이 좁아지고, 걷는 거리가 줄고, 좋아하던 활동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면 변형의 각도보다 통증이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둘째,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볼이 넓은 신발, 발가락 교정기, 깔창, 스트레칭 등의 보존적 치료를 수술 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는 통증을 줄이고 변형의 진행



정형외과 임경훈 과장

약력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원광대학교병원 인턴·정형외과 레지던트 수련
원광대학교병원 임상전임의(족부·족관절)
원광대학교병원 임상전임의(건·주관절)
현재 성가롤로병원 정형외과 과장

전문분야
족부 질환 및 변형 교정(무지외반증, 평발/요족 등), 발목 인대 손상 및 만성 발목 불안정증, 발목 관절-연골 질환(관절염, 거골 골연골병변, 충돌증후군 등), 당뇨발(궤양, 감염, 변형), 상·하지 골절 및 외상, 관절경 및 최소침습 수술, 발목 인공관절 치환술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된 구조적 변형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셋째, 변형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나요? 발가락의 변형이 1~2년 사이 눈에 띄게 진행하거나, 두 번째 발가락이 들리기 시작했다면 변형이 점차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한다면 정말 평가 및 수술적 치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수술적 치료 - 최소 침습 무지외반 교정술

무지외반증의 수술법은 연부조직 균형술, 뼈 절골술, 관절 유합술로 나뉘며, 변형의 정도와 방사선 소견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중 가장 주목 받는 변화는 최소 침습 수술의 발전입니다. 1세대 경피적 절골술에서 시작해, 2세대 K-wire 고정, 3세대 나사못 고정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성가롤로병원에서 주로 시행하는 4세대 최소 침습 무지외반 교정술(MITA)은 회전 변형까지 교정할 수 있도록 발전하였으며,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수술은 2~3mm의 절개 4~5개를 통해 전용 기구로 뼈를 절삭한 뒤 나사못으로 고정하며, C-arm 투시 하에 실시간으로 교정 각도를 확인하면서 진행합니다. 기존의 개방 수술보다 상처가 작아 감염 위험이 낮고, 수술 후 1~2일째부터 전용 신발로 보행이 가능할 만큼 회복이 빠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최소 침습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형이 매우 심하거나 관절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다른 술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술 사례

중등도~중증 무지외반증으로 내원하신 50, 60대 여성 두 분의 사례입니다. 최소 침습 무지외반 교정술 후 9~11개월 추시에서 교정 상태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무지외반증 수술은 더 예쁜 발을 만들기 위한 성형수술이 아닙니다. 통증과 기능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적 치료이며, 그래서 같은 각도라도 어떤 분께는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분께는 신발 교정으로 충분합니다. 발에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너무 미루지도 서두르지도 마시고 한번 정확하게 평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림 3. 50대 여성. A. 수술 전 B. 수술 직후 C. 수술 9개월째 나사못 제거 후 X-ray와 임상 사진 (사진: 성가롤로병원 임상사진, 그림: 구글 제미나이)

김칠성 과장, 아프리카 식수·위생 지원 사업에 6,700만 원 남몰래 후원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김칠성 과장이 지난 2016년부터 약 10년 동안 아프리카 소외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남몰래 식수·위생 지원 사업을 후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생명의 최전선인 응급의료 현장에서 다져진 그의 사명감이 지구 반대편의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마중물이 된 셈이다.

매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들을 마주하며 사투를 벌이는 김칠성 과장은 일상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오염된 물로 인해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현실을 접한 그는 주저 없이 나눔을 결심했다. 그는 2016년부터 굿네이버스를 통해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등 식수난이 심각한 지역에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광 급수 시설과 화장실 등 식수·위생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그가 지난 10년간 묵묵히 전달한 누적 기부액은 벌써 6,700만 원에 달한다. 이러한 선행으로 마련된 현지의 태양광 급수시설에는 그의 뜻을 기려 ‘7 Star Water’라는 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다. 김칠성 과장은 ‘아프리카에 우물 100개를 선물하겠다’는 아름다운 목표를 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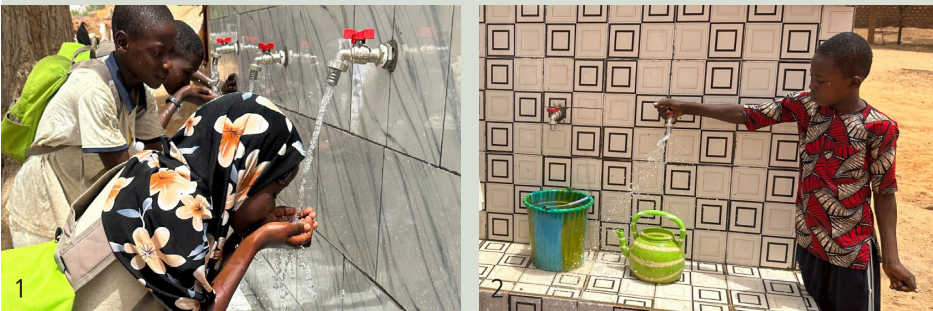


사진 1~2: 태양광 급수시설과 연결된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아이들 | 사진3: 태양광 급수시설과 김칠성 과장의 이름을 딴 시설물의 현판



트라넥삼산

트라넥삼산은 출혈 조절에 사용되는 지혈제이다. 혈액 중 지혈을 위해 생성되는 혈전을 분해시키는 플라스민을 억제하여 지혈 작용을 한다. 또한 플라스민에 의해 멜라닌의 생성이 촉진되는 과도도 저해하므로 항산화제 등과 복합되어 기미 치료제로도 사용된다.

효능·효과 및 약리작용

트라넥삼산은 플라스미노겐이 플라스민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억제하여, 플라스민에 의해 혈전 내 섬유소와 응고 인자들이 분해되는 것을 방지한다. 플라스민은 혈액 응고 외에도 기미와 같은 피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멜라닌 세포의 성장과 생성을 촉진한다. 트라넥삼산은 플라스민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 멜라닌의 생성을 방해한다.

용량 및 용법

종류	제형	제품 예	용법·용량
단일제	캡슐제	도란사민	1일 750-2000mg 3-4회에 나누어 복용
	주사제	트라넥삼산	1일 250-500mg을 1-2회 나누어 정맥/근육주사 (수술 관련 출혈시 1회 500-1000mg 정맥주사 / 500-2500mg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정맥주사)
복합제	정제	더마화이트	1회 2정, 1일 3회 복용



과도한 출혈 조절

멜라닌 합성 억제

금기

- 혈전이 있는 환자나 혈전증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 트라넥삼산을 투여할 경우 혈전이 안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트라넥삼산 투여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나 출혈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있는 환자들은 정맥에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이므로 트라넥삼산 투여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트라넥삼산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의 사항

- 일반적으로 고령자에서는 생리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트라넥삼산을 투여 시 감량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 트라넥삼산 단일제 캡슐제의 경우 15세 미만의 월경과다 소아에 대한 사용 경험은 부족하다.
- 지혈 작용이 있는 약물(트롬빈, 헤모코아굴라제 등), 경구 피임약 등과 병용할 경우 혈전 형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는 트라넥삼산 복용 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출처: 약학정보원 | 약제팀 신유리 약사



지금은 '매운맛' 전성시대



매 끼니 식탁에 올려지는 김치,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양념한 반찬, 국과 찌개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양파와 마늘 등 우리 식탁을 채우는 대부분의 맛은 매운맛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뿐만아,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국민 간식 떡볶이, 떡꼬치, 닭강정도 매콤한 맛이다. 한국인이 얼마나 매운맛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된 매운맛. 그 고유하고 독특한 맛의 매력을 짚어 보자.

매운맛을 중시해온 한국의 음식 문화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우주공간을 상징하는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 세상 만물 이치를 정리하고 이를 음식문화에도 적용하였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을 '오미'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겨 왔다.

스트레스 해소, 체중 감소에도 효과
많은 사람이 매운맛에 열광하곤 하는데, 이는 아마도 매운 음식이 제공하는 묘한 쾌감 때문일 수도 있겠다.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사실은 꽤 과학적인 주장이다. 고추에 든 캡사이신이 혀와 입안의 신경과 만나면, 이 신경에 있는 통증 전달 물질이 입안이 탄다는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뇌는 통증을 줄이고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몸의 자연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분비하는 현상으로 설명이 된다.

즉, 캡사이신으로 인한 체내 스트레스를 줄이는 작용으로 분비된 엔도르핀은 통증 감소 효과와 더불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어 쾌감까지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매운맛을 중화하는 식품과 함께 섭취
그러나 매운맛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상의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습관적으로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다. 매운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위장장애를 예방하려면 위 점막을 보호하고, 매운맛을 중화하는 양배추, 두부, 달걀 등을 함께 섭취할 것을 권한다.

칼칼한 매운맛, 고추
고추는 매운 음식을 찾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의 칼칼하고 개운한 맛이 난다. 고춧가루, 고추장으로 만들어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며, 생으로 먹거나 조림, 무침, 장아찌 등 매콤한 맛을 살린 요리와 밑반찬에 두루 활용된다. 풋고추, 청양고추, 파리고추, 아삭이 고추 등 종류에 따라 매운 정도가 다르다. 고추는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캡사이신이 비타민 C의 산화를 막아 조리 후에도 영양소 손실이 적다.

아릿한 매운맛, 마늘
마늘은 한국인의 즐겨 먹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이다. 한식에서는 각종 요리의 양념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식재료로, 강한 향이 특징이며 특유의 아릿한 매운맛으로 음식의 맛을 돋운다. 마늘은 조미나 향신료 등 요리의 재료로 주로 활용되며, 각종 김치나 국 등에 어우러지는 맛을 낸다. 마늘에는 살균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함유되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B가 풍부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맵싸한 매운맛, 양파와 파
양파와 파는 요리에 깊고 시원한 맛을 내 한식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식재료 중 하나이다. 생으로 먹으면 맵싸한 향과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매운맛이 강하지만, 가열하면 단맛이 올라오는 특징이 있어 매운맛과 달큰한맛 등 여러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낸다. 양파는 동의보감에 '오장의 기에 모두 이롭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비타민 C, 칼슘, 인 등의 영양소가 많고, 찌개나 볶음, 국, 샐러드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된다. 파는 머리부터 잎, 줄기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향신 채소로 각종 양념에 빠지지 않는다.

출처: 농식품 소비공감 영양팀 이선애 영양사

333호

5월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박은옥 | 진료협력팀 윤현아 | 약제팀
오행선 | 외래간호팀 김혜원 | 질향상팀
유정아 | 수술실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원무팀입니다.

1. 전남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을 기념하여 개최한 심포지엄의 1부 주제는 무엇인가? **급성기 치료**
2. 지난 4월 16일 대한화학손상연구회 제2회 심포지엄을 우리 병원 성심홀에서 개최하였다.
3.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Polyp)을 발견하고 제거함으로써 암 발생률을 70~90%, 사망률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기 검진 도구는 무엇인가? **대장내시경**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 ① 고흥·구례·보성 지역아동센터에 이웃사랑나눔 기금 전달
 - ② 유진 화백, 환우들을 위해 그림 기증
 - ③ 참전유공자 송무길 님,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 ④ 치료식 바로알기 행사 개최

YouTube

수요강좌 유튜브 보러가기 ▶

뇌경색
골든타임의 중요성

성기병원 병원TV

신경과 전문의
신대수 과장

복음 묵상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미 꼬라손(Mi corazón): 너를 향해 뛰는 나의 심장



6월 예수 성심 성월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달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마음과 관련된 스페인어의 아름다운 표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를 부를 때 ‘미 꼬라손(Mi corazón)’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직역하면 ‘나의 마음’, ‘나의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심장과 같다.”,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호칭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맞아,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예수님의 열린 심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성심(聖心)이 오늘 이 병원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 이렇게 속삭이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나의 심장, 미 꼬라손(Mi corazón)이다.”

마태오 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작고 약한 ‘철부지’들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셨다고 감사 기도를 바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병원이라는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 ‘무거운 짐’이 가득한 곳입니다. 환우 여러분이 겪어온 질병의 고통,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외로움은 참으로 무거운 짐입니다. 육신의 통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지침 속에서 여러분의 심장은 매일 힘겹게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에게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긴장하며 겪는 피로, 밀려오는 업무와 책임감, 때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마주해야 하는 이별의 순간들은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환자들을 치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과 마음이 소진되는 ‘번아웃’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의 성심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박물관에 박제된 차가운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며,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며 지금도 살아서 약동하는 사랑의 심장입니다.

치유의 신비가 일어나는 이 병원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마태 11,29)

예수님의 성심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함은 아픈 이들의 나약함을 다그치지 않고 감싸 안아주는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겸손함은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느님 아버지의 도우심에 온전히 의탁하는 마음입니다.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톨릭 영성 안에서 우리의 심장은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깊은 지성소입니다. 비록 몸은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Mi corazón)을 예수 성심에 온전히 봉헌할 때, 여러분의 고통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수난과 결합 되어 신비로운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이 환자의 몸을 만지고 치료하는 그 손길은 바로 예수 성심의 온유함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위에,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해질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성심이라는 샘터에 와서 그분의 온유함을 배우고 가십시오. 그분의 멍에를 함께 메 때, 여러분의 직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숭고한 성직(聖職)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심 안에서 환우들과 의료진 여러분은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심장으로 연결됩니다. 의료진은 환우들의 고통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환우들은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하며 기도해 줄 때, 이 병원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하느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소중한 소지품을 잃어버리셨나요?

이제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소지품을 찾아드리기 위해 온라인 습득물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병원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습득물 안내
홈페이지 : www.stcarollo.or.kr 문의: 총무팀(061-720-6432,6434)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진료일정은 2026년 4월 1일 기준이며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 금 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 협: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법인 포함)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5.1.~5.31)

고호문, 김상순, 김영진, 나재형, 박종혁, 서빛나, 여성남, 오경순, 유일환, 최치환, 추태선, 경진기업, 동성메디스, 성우메디칼, 순천시의사회, 스노우피크 유저모임, 엘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편안한김약국, 호남지오영여수, 효성 의료기, 익명 2명, CMS약정자 12명



노화의 주범, 몸 안의 독소 활성산소와 항산화능력 검사



휴일 내내 쉬었는데... 왜 월요일 아침은 천근만근 무거울까?



푸석한 피부에 생기도 없고... 요즘 들어 부쩍 늙어 보여 속상해!



세계 의학계에서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활성산소 과잉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잉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의 근원!



충격!

활성산소가 노화는 물론 각종 암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로 밝혀져

우리 몸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방어체제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능력을 항산화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질병 유무나 생활 습관에 따라 각자의 항산화 능력 또한 다르며, 항산화능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 그만큼 활성산소로부터 피해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겨 이러한 방어체제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외부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여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럴 땐 활성산소&항산화능력 검사를 받아보세요!

- 늘 피곤하고, 불면증, 우울증, 편두통, 비만증, 피부 이상이 있는 경우
- 여러 만성증세가 있으며 다양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 나이에 비해 피부가 어둡거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 경우



그림: 전수미 수녀(예수의 가리따스 수녀회 광주관구) | 감수: 건강증진센터 정종승 센터장 | 참조: GC녹십자의료재단 리플렛

성가롤로병원의 건강증진센터는 건강과 행복을 우선합니다!

원스톱 건강검진 시스템 | 29개 진료과 | 생애 주기별 검진 프로그램 | 신속한 외래 연계 진료



성가롤로병원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성가롤로병원 건강증진센터(별관 3층)
예약시간 평일 08:00~17:00 | 검진문의 061)907-7200